

잡지 『희망』의 반공, 냉전이데올로기의 구축과 분열 — 수기, 회고를 중심으로

홍순애*

1. 서론
2. 반공국민 프로젝트와 애국의 일상화
3. 미소냉전 논리와 스파이, 밀화의 서사
4. 극우반공담론의 약화와 탈이념적 사회문제 지향
5.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의 수기, 회고를 중심으로 1950년대 반공과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구축, 고착되는 과정을 논의했다. 월간 『희망』의 내국인 수기는 시기별로 종군기자 수기, 휴정협정 후 월남 귀순수기, 간첩 수기 등으로 분류된다. 이 수기들은 애국시민 창출에 기여했고, 이것은 전쟁의 상흔을 집단기억으로 전화함으로서 반공의 내면화를 주도했다. 수기들은 대중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잡지라는 미디어의 특성상 정론에 가까운 이데올로기 투영보다는 흥미와 오락의 차원에서 반공이 재생산되고 소비되었다.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 간첩담론은 관능성의 흥미 본위의 서사로 윤색되며, 반공과 섹슈얼리티의 조합은 희망사의 대중매체 전략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다.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또한 외국인 수기들은 냉전이데올로기에 의한 한국전쟁 체험 수기, 스파이 전향수기로 분류된다. 이 수기들은 냉전 반공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부각되며, 소련의 정치체제와 비인간화를 비판하는 논조로 일관된다. 이 수기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개인의 귀환을 우선으로 서술함으로써 한국전쟁과 아시아의 표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기는 한국전쟁의 배후에 냉전체제가 존속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가치와 당위성을 전달하는데 유효했다.

1950년대 말 극우반공주의는 내적 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내적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958년 1월 월간 『희망』이 혁신호를 발행하면서 탈이데올로기적 사회현실에 집중, 극우반공담론이 약화된다. 즉, 월간 『희망』이 1950년대 반공담론을 주조로 하여 프로파간다적 상업적 저널리즘 추구했다면, 1958년 이후 극우반공체제에 대한 거리두기와 탈이념의 현실정치의 당면과제에 집중하면서 변혁되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월간 『희망』, 『주간희망』, 반공주의, 냉전담론, 한국전쟁, 스파이 담론, 반공규율사회, 수기)

1. 서론

본 논문은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의 수기, 회고를 중심으로 1950년대 반공과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구축, 고착, 분열되는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희망사 출간 월간 『희망』은 1951년7월 김종완을 발행인으로 피난지 부산에서 발간되어 1962년 3월 통권 88호까지 발간되었다.¹⁾ 그리

1) 월간 『희망』은 “문예와 오락의 잡지”(1951.9), “대중종합잡지”(1951.11), “명실상부한

고 1955년 12월26일 발간된 『주간희망』은 “신문적 잡지, 잡지적 신문”을 편집노선으로 하여 『새한민보』의 저널리즘 정신을 계승한 해설저널리즘에 방점²⁾을 두고 1958년 9월 19일 135호까지 발행되었다.

발행인 김종완은 해방 후 동양외국어전문학교 3년 수료하고 『한성신문사』와 『독립신문사』 기사를 거쳐 1951년 전시 부산에서 희망사³⁾를 설립했다. 당시 월간 『희망』⁴⁾은 오락 대중지와 교양의 종합지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당시 『신태양』, 『신천지』, 『학원』, 『사상계』 등과 경쟁했고, 피난지 국민들의 ‘희망’과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을 간행 목적으로 삼았다. 월간 『희망』은 반공사상을 바탕으로 처음 1만부의 부수로 발행되어 8만부까지 간행⁵⁾되었다.

월간 『희망』 1953년 신년특별호에서 김종완은 “사람은 누구나 다 희망에서 살고 또 희망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중략) 戰爭의 勝敗가 힘

대 국민지”(1953.8), “최대 최고의 위풍을 갖춘 대중지”(1954.1) 등의 잡지노선을 표방했고, 1955년 11월 국판으로 개정하면서 교양보다는 흥미 위주의 기사를 중심으로 변경하며, 1957년 4월 “신춘혁신호”를 통해 “호화 대화보의 대중오락잡지”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1958년 1월호를 계기로 하여 정론지의 성격으로 다시 변화된다. 1959년에는 84, 85호를 낸 이후 4.19와 5.16의 두 혁명으로 발행이 중단(1962. 1월호, 편집후기), 1962년 3월 88호로 중단된다.

2) 최미진, 『『주간희망』의 도전과 매체전략』, 『대중서사학회』 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161쪽. 이 논문에서는 『주간희망』의 매체전략을 논의하면서 이 잡지가 해설저널리즘을 지향했으며, 한국 최초의 본격적 주간지의 이정표에 맞는 편집체제와 편집보선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한다.

3) 김종완은 월간 『희망』(1951)을 시작으로 하여 『여성계』(1952), 『문화세계』(1953), 『야담』(1955), 『주간희망』(1955), 『동아춘추』(1962), 『올다이제스트』(1964), 『동서춘추』(1967), 『수상』(1977), 『사담』(1986) 등의 10여종의 잡지를 간행했고, 1952년 한국잡지협회를 설립하여 회장에 취임, 정부와 교섭해 잡지를 위한 용지를 배급받기도 했다.

4) 월간 『희망』의 편집노선과 체제변화를 총괄적으로 살피고 있는 공임순의 논문은 월간 『희망』과 희망사의 방계잡지간의 관계, 전후 레짐의 반공, 오락의 기묘한 결합과 변주를 잡지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23권 제3호, 대중서사학회, 2017.)

5) 조풍연, 『출판문화(6월호)』, 1975, 대한출판문화협회, 5쪽.

과 힘의 對決에서 決定된다함은 너무나도 뻔한 事實이거니와 더욱이 現代戰이 總力戰이라함에 있어서 勝戰의 絶對的인 요소가 總力戰의 態勢의 完備와 實踐에 있음은 再論을 要할바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前後方이 없는 總力戰을 遂行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힘과 합의 結束이 必然的인 要請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한다. 권두언에서 김종완은 국가의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 희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잡지를 발간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동시에 총력전 수행에 있어 후방의 결속과 문화선전 사업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실천이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는 방법임을 천명한다.

탈식민국가에서 냉전체제로의 직행,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국가 붕괴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고민은 전후 잡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희망사의 설립자 김종완에 대한 문단이력이나, 기자이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신 월간 『희망』의 창간 편집인으로 참여했던 공중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중인은 해방 후 잡지 『백민』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 전쟁 직후 6.26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의 ‘비상국민선전대’에서 향전시를 낭독한 바 있다.⁶⁾ 문총은 문총구국대를 편성하여 종군작가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공중인은 해군 종군작가단에 참여하여 전쟁 승리를 독려, 1952년 ‘제2차 육해공군 합동추모식’에 임하여 『동아일보』에 진혼곡을 발표했다. 반공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공중인이 월간 『희망』의 편집을 맡았다

6) 『문단 반세기(59)-6.25와 전시문단』, 『동아일보』, 1973.7.11.

북의 남침 직후인 6월 26일 문총은 상임위를 열어 시민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 이에 공중인은 김윤성과 함께 향전시를 낭독했고, 북한군이 점령할 때 까지 녹음방송을 진행했다. 해방 후 좌익의 문인단체였던 ‘조선문화가동맹(문맹)’이 ‘조선문화단체총연맹(문련)’으로 개칭하여 활동했던 반면, 우익작가들은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를 결성하여 반탁운동을 벌였고, 6.25 직후 문총은 문총구국대를 편성하여 종군작가단을 구성하고 반공이데올로기 확산에 집중하게 된다.

는 것은 잡지의 우파적 성향을 짐작하게 한다. 1952년 9월호에 공증인은 「우리는 祖國을 지키는 勇士」 “겨레의 피 여러 천년을 흘러 지금 우리 혈액 속에 흘러거니… 죽어서 진흙 되어도 족하리라”라는 시를, 1953년 1월호 편집후기에는 “우리의 형제들이 조국의 이름으로 滅共戰線에서 死線을 초월하여 싸우는 無我的 가슴에 마음의 가장 뜨거운 慰安을 보내드릴 것”을 언급한다. 즉, 초창기 월간 『희망』의 저널리즘적 경향이 반공체제의 공고화와 반공담론의 재생산에 있었고, 이것은 후방의 사회 안정과 전쟁독려를 위한 애국심의 고취로 이어지게 된다. 희망사에서 1952년 4월 국방부 정훈국에 월간 『희망』 2700부(당시 시가 700만원)를 기증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기 위한 장치는 미디어를 통한 감성호소에 있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대규모 유통될 때 유효하게 작동된다. 해방 후 소련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냉전논리의 진전과 1948년 여순사건의 무력충돌과 좌익세력의 남한 잔존문제는 이승만 정권의 국시를 반공으로 추진하는데 촉발점이 되었고 전체주의적 민족주의는 부활된다. 반공주의는 단독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이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 ‘비국민’을 구별할 필요에 의해 대두되었고, 이것은 태생 자체가 ‘내부의 적’에 대한 색출과 배제의 의미로 기능했다.⁸⁾ 제1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주의는 분단체제에서 국민국가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38선에 의한 이산과 분단에 따른

7) 『잡지 『희망』 2700부 기탁』, 『동아일보』, 1952.4.5.

『희망』의 독자편지란에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글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장병들은 잡지를 읽은 소감, 좋은 기사에 대한 칭찬 등을 써서 잡지사에 보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희망』의 독자들 중 상당수는 군인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8) 이하나, 『1950-19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사회와 역사』 95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206쪽.

개인의 무정형적 정념의 역사적 구성체였다.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부정해야 하는 논리 속에서 남한의 정당성은 반공주의로 수렴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결집의 효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국가체제 수호의 의지와 정권의 연장 논리에 의해 강력하게 작동되었다.

월간 『희망』은 권두언에서 김종완이 언급했던 것처럼 “전후방의 총력전”을 위한 기획기사들을 게재하게 된다. 전후방 독자들에게 전쟁 수행 이유, 전투 승리 목적을 제시하는 글들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던 까닭에, 개인의 경험을 감정의 언어로 쓴 수기는 이 시기 전후방 국민들을 하나의 감정공동체로 엮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1950년대 전쟁 수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정치적 입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파시즘적 글쓰기의 전형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쟁에 대한 폭력, 죽음에 대한 공포, 적에 대한 적의, 육체적 고통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것은 논리적이기 보다는 정서를 자극하는 감정언어로 재현된다. 수기를 통해 국토 침범에 대한 울분과 전우, 가족을 잃은 비통함이 전달되면서 반공, 방첩의 이데올로기는 내면화되고,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적의는 전쟁의 동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반공수기는 자기감정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선정적 이미지 차용과 대중감성에 호소, 멸공과 타공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함으로써 관제문학의 형태로 고정된다. 1950년대 전시국민의 정체성을 부여받기 위한 글쓰기가 반공수기였고, 이것은 혐의자들에게 사상통제와 검열에서 놓여나는 하나의 지구책이었다.

그렇다면 1950년대 반공규율국가의 애국시민 양성 프로젝트에서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에 수록된 수기, 회고들은 무엇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희망사 발간 월간 『희망』, 『주간희망』의 수기, 회고들은 반공이데올로기와 냉전체제 안에서 개인의 기억을 어떻게 공적 기억으

로 전화하는가. 미공보처의 후원 하에 발행된 전쟁 수기집, 즉, 지식인 층이 자신의 이념적 순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원된 수기집들이 다수 공존하는 가운데 월간 『희망』의 수기와 회고는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게재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의 내부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탈이념적 성향의 내적 균열은 없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수기와 회고를 통한 자기고백, 자기서사적 글쓰기에 침윤된 반공과 냉전이데올로기의 양상과 의미, 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월간 『희망』, 『주간희망』의 1950년대 반공주의의 역사적 연속성을 추적하고자 한다.

2. 반공국민 프로젝트와 애국의 일상화

월간 『희망』에 수기, 회고는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전에는 전장의 상황을 보고하는 종군기자의 수기, 전투 참여 수기를 중심으로 전장의 긴장과 치열함을 서술했고, 휴전협정 이후에는 개인적 전쟁체험을 중심으로 월남, 빨갱이, 간첩 수기들이 집중적으로 게재된다. 1953년 9월 출판사가 서울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편집체계를 갖춘 때문인지 정치, 문화인들의 수기와 외국인 필자의 번역본 수기들이 매호 게재되며, 1954년 이후에는 그 분량이 증가하여 한 호에 2-3개 씩 게재된다. 『주간희망』은 해설저널리즘을 표방한 이유로 소식, 기사에 치중하고 있어 개인적 글쓰기인 수기, 회고의 분량이 적게 배치되고, 내용도 일상의 일로 국한된다.

월간 『희망』에 게재된 반공수기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전시 중의 전투참여수기, 종군기자 수기, 둘째, 휴전협정 후 1950년대 중반의 월남 귀순자, 빨치산 잔류 인민군 수기, 셋째, 1956년 이후 게재되는 스파이, 간첩수기 등으로 분류된다. 월간 『희망』, 『주간희망』에

수록된 반공수기, 회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내국인 수기와 외국인 수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⁹⁾

〈표 1〉 월간 『희망』 반공 관련 내국인 수기, 회고 목록

날 짜	제 목	필 자
52. 6	영철에 묻혀진 북풍의 정열 나의 반생기/ 서백리아의 꿈	이법석/ 김마리아
52.12	수렵과 나	이법석
53. 2	인생회고록-광복군과 나의 투쟁	지청천
	북한문화계의 파멸상-남치문화인의 포섭정황	김용제
	중군삼화	이덕진
53. 7	해군 전투기-창린도 혈전기	중군기자
53. 9	나는 왜 민국당을 탈퇴했는가	임홍순
54. 4	이대통령 옥중수기-79회 탄신기념	이승만
54. 6	지상보고 어느 빨치산의 상태 그 속에 숨은 비화	최대현
	공개되지 않은 동란의 이면과 그 밑중밀화	도태길
54. 9	납치인사를 만난 유격대장의 수기	성사문
54.10	여성이 본 독도	정봉숙
54.12	악속에 춤추던 소년-어느 고아의 갱생기	손관익
55. 1	간첩 『십이호』의 고백	김신석
55. 2	나는 왕족인 것을 슬퍼한다-고종황제 손녀의 수기	이해춘
	전선에 숨은 이야기-병사와 계곡과 산포도	이신득
55. 3	공의를 위한 열혈의 분투	함태영
	나는 이렇게 탈주했다 (상)	배상하
55. 4	나는 박팽년의 십육대손	박상동
	나는 이렇게 탈출하였다(중)	배상하
55. 5	나는 이렇게 탈출하였다(하)	배상하
55. 6	6.25 밀화 원숭이 쪼쪼의 정보활동기	박중임

9) 수기, 회고 목록에는 여행 회고담과 기행문, 단편의 수필적 회고담, 실화의 제명을 달고 서술된 것은 제외하였다. 실화의 경우는 반공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다수 게재되지만 수기와 회고는 자의식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특징을 갖지만 실화의 경우는 구술을 통한 받아쓰기로 경험자와 서술자가 구별된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실화의 경우는 허구적으로 구성되는 예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날 짜	제 목	필 자
55. 7	나는 신립장군의 십삼대손	신낙현
55. 8	연평의 원수를 갚아주소	이의선
	지리산에 평화는 정녕왔는가? 귀순소년의 회상기	김동홍
55. 9	9.28 회고-5년 전 전재 후 일담	
	전우애로 맺어진 한미 양국 정일권 대장 방미수행록	k 생기
	나의 밀랍생활 수기	조병기
55.12	전야에 나타난 순애의 현화	최속명
	자유로운 조국 땅이 그리워-주우브 타고 임진강 건너	이한궁
	제2의 조병기: 이방의 산중생활 13년 (소년병)	이혜복
56. 2	의료여화-피랍미망인 여의사의 수기	장문경
56. 3	유관순 혈투비화	김정복
	나는 대남 스파이였다-붉은 간첩의 수기	이효신
56. 4	어린 고아의 수기 (1)	금설희
	무너진 붉은 아성(1)-고 김창용 중장 기밀 수기 전록	김창룡
	백설이 뒤덮인 남해의 영봉 정복-한라산 등적	
56. 5	무너진 붉은 아성(2)-고 김창용 중장 기밀 수기 전록	김창룡
	어느 고아의 수기 (2)	금설희
56. 6	어느 고아의 수기 (3)	금설희
56. 7	내가 본 소련 -월남조종사의 수기	이운용
	어느 고아의 수기(4)	금설희
56. 8	어느 고아의 수기 (5)	금설희
	나의 부통령 낙선거-국민에게 보내는 백서	이범석
56. 9	어느 고아의 수기 (6)	금설희
56.10	어느 고아의 수기 (7)	금설희
56.11	어느 고아의 수기(8)	금설희
	6년간의 빨치산 생활을 청산하며-태백산 지구 최후의 공비의 수기	안용주
56.12	사형수 허태영 부인 눈물의 수기-아무도 원망지 않으렵니다	황운하
57. 1	내가 걸어온 길	장면
57. 2	내가 걸어온 길 (상)	조봉암
57. 3	내가 걸어온 길 (하)	조봉암
57. 7	세칭 제주도 여공비의 성생활 백서	조순애
57.10	나는 150명의 사형집행 입회 (검사수기)	박종훈

〈표 2〉 『주간희망』 내국인 수기, 회고 목록

날 짜	제 목	저 자
57.3.8	다시 전선으로 가련다.	김장옥
57.3.15	부다페스트 죽음의 탈출-헝가리에서 온 청년 정태군의 고백	정태군

먼저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수기를 살펴보면, 전시 중 월간 『희망』에 게재된 「중군기자수첩-전선과 후방」(1952.6), 「중군삽화」(1953.2), 「해군 전투기-창린도 혈전기」(1953.7), 「공개되지 않은 동란의 이면과 그 밑중 밀화」(1954.6) 등은 전장, 전투수행의 치열함과 전쟁 승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한다. 「중군삽화」(1953.2)에서는 휴전선 이북 2913부대의 중군시찰기로 전장에 대한 긴장과 불안, “밤새도록 적진을 노리는 사병”들의 강인함, 탄약 물자공급, 보급로 확대를 위한 도로확장 작업을 수행하는 비전투 노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후방의 안전을 위한 전투 요원들의 희생과 죽음, 전투 부대의 열악한 물자상황을 보고함으로써 전쟁이 힘겹게 진행 중임을 환기한다. 또한 전쟁이 전투 군인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노고와 희생이 뒷받침 되어 있음을 전달한다. 9.28 수복 이후 서울의 근황과 납치인사들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수기인 「북한 문화계의 파멸상-납치문인의 포섭 정황 등」(1953.2)은 1.4 후퇴 뒤 2차 피란에서 돌아와서 본 서울 모습과 평양의 근황을 서술한다. 이 수기는 서울 수복상황을 전하면서 깨끗함과 친절함을 인상 깊게 느끼고 있고, 국립도서관 방문 후 파손의 흔적 없이 서적들이 온전하게 보존된 것을 북한의 의식적 선전술이라 단정한다. 북한의 정황에 대해서는 고위층의 방탕한 생활, 문예총 회원자격으로 소량의 잡곡만을 배급받는 문화인들의 비극적 생활, 전향을 하지 않은 인사들의 구금생활 등을 서술한다.

『해군전투기-창린도 혈전기』(1953.7)는 1952년 서해 창린도가 적의 기습을 받았으나 해군전투함대가 출동하여 적과 포격전을 벌여 승리한 내용을 서술한다.

○○함 주위에는 적탄으로 말미아마 수많은 물기둥을 이루었으나 함은 그 물기둥을 가로세로 빠지며 포신이 붉게 닳도록 쏘아 치열한 포화는 피아를 연결하는 바다를 전면 붉은 테푸를 뿌리놓은 듯 불바다로 화해버리고 적진은 화염이 하늘을 덮고 적의 포대와 병력집결소는 여지없이 부서져 나갔다. 이렇게 하여 ○○함은 전속력으로 탄우를 나는 듯이 빠져다니며 용감히 공격을 계속하고 있을 때 영향모함으로부터 우군기가 날라와 적진 머리위에 포탄을 퍼부었다.

국군함대의 공격과 영국군의 지원 하에 국토를 성공적으로 수호한 내용들은 스펙터클한 묘사를 통해 서술된다. 북한군 일개 부대를 전멸시킨 혁혁한 성과는 육해공 협력의 입체작전 성공 덕택이며, 함대 승조원들의 피땀 어린 공격정신은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전쟁 중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이 수기는 필승의 논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중군기자의 전쟁후일담 수기인 『공개되지 않은 동란의 이면과 그 밑중밀화』(1954.6)는 “일요일 미명 잔악한 괴뢰들은 쏘련제 땡크를 앞세우고 흡혈귀처럼 물밀 듯이 남침하였다.”라는 선정적인 제호 아래 남침 3일간의 격전의 내용을 전한다. 수기는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 장도영씨는 붉은 침략자의 발굽소리 요란한 오전 9시까지 서울에 잔류하여 모든 비밀문서를 없애고 유유히 헤엄쳐 도강했다.”는 식의 영웅담으로 포장된다.

전장수기들은 군인들의 목숨을 건 전투 투입과 영웅적 행동, 승리의 과정, 국토 회복과 종전의 필연성, 통일이라는 상상적 미래를 투영하는 서사로 구성된다. 이것은 국민을 하나의 이념 공동체로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며,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 후

방의 독자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게 된다. 이에 수기는 대북 전투의 승전 메시지로 활용되며, 군인들의 사기고취와 후방의 안전을 전달함으로써 대민 보고의 관제적 성격을 띤다. 38선 이북으로 전선이 좁혀진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전방의 소식을 전하는 수기들은 영토의 회복, 통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독해되었다.

두 번째 유형으로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월간 『희망』은 국시로서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빨치산 수기, 월남귀순 수기인 「어느 빨치산의 생애-그 속에 숨을 밀화」(1954.6), 「지리산에 평화는 정녕왔는가-일 귀순소년의 회고담」(1955.8), 「자유로운 조국 땅이 그리워-쥬브타고 임진강건너 월남」(1955.10) 등을 게재한다. 「어느 빨치산의 생애-그 속에 숨을 밀화」(1954.6)는 28세 빨치산 안문길의 재판을 지켜본 법무관의 수기이다. 수기는 빨치산이 죽창으로 52명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댓가로 총살당하는 과정이 서술된다. 재판 당시 당의 지령에 따라 살인한 것으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엄숙한 법의 판결”대로 총살형이 집행된다. 안문길은 빨치산의 잔인함을 표상하고 있고, 공산주의에 세뇌된 괴물로 재현된다. 빨치산에 의해 살해된 국민은 순수한 희생양으로 재현됨으로써 무고한 남한 양민 대 북괴 살인자의 대립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북한군, 빨치산 등은 비인간적인 존재의 유형으로 표상됨으로써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각인된다.

휴전 후 북한장병, 주민들의 귀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¹⁰⁾하면서

10) 「전 박헌영 부관 귀순, 경찰 선무공작 주효」, 『자유신문』, 1953.11.4; 「귀순자는 생활 보장」, 『자유신문』, 1953.12.11; 「41귀순자 광명의 길로 자유로운 몸 되어 구호의 손 받아」, 『동아일보』, 1954. 6.17; 「공비일거에 5명 귀순, 도민증을 교부코 환영대회」, 『동아일보』, 1954.12.20; 「귀순한 북한일 21명 석방」 『동아일보』, 1956.3.16; 「폭설을 틈타 귀순, 과로, 굶주림에 지친 병사」, 『동아일보』, 1956.3.30 등.

월간 『희망』에서도 귀순자들의 수기가 게재되는데, 이 글들은 남한의 생활적 풍요로움,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북한 공산주의 체제 불안 등에 대한 사실들을 서술한다. 「지리산에 평화는 정녕왔는가」 귀순소년의 회고담』(1955.8)은 18세 곡성군단 선전원 소년의 귀순기이다. 수기는 약탈 노예생활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 귀순한 과정이 제시되면서 북한 공산주의 계급타파에 대한 슬로건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어린 소년이 귀순을 했다는 점에서 이 수기는 좀 더 감성적으로 전달되는데, 의식주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의 결핍은 소년을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귀순의 당위성이 강조된다. 아이를 불모로 이념을 선전하려는 공산주의의 냉혹함은 여기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자유로운 조국 땅이 그리워-쥬브타고 임진강건너 월남』(1955.10)은 농지개혁으로 인한 농토 몰수, 세금부담, 가난으로 월남한 민간인이 한국 함정에 구조되는 과정이 서술된다. 이러한 수기는 전쟁 이후의 북한의 피폐한 현실과 공산주의 정책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남한의 자유주의 체로의 귀순이 당연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귀순자들의 정착은 수기 이외에도 실화, 인터뷰, 방문기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남한으로의 귀순을 독려했는데, 「월남한 이운용대위 신희가정방문기』(1956.6)는 1955년 6월 북한 조선항공사령부 직속 독립연대 858부대 소속 이운용 상위가 야크18(Yakovlev Yak-18)연습기를 타고 귀순한 과정과 근화여자대학 심원순과 결혼하여 공군이 제공한 주택에서 행복한 신희살림을 하고 있는 것을 기사화한다. 또한 이운용이 공군 대위로 임명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귀순자의 처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¹¹⁾ 이러한 수기는

11) 당시 매체들은 「비기타고 여의도착 북한 두 공군장교 귀순」, 『동아일보』, 1956.6.22; 「상급수여도 결정 귀순한 두 비행사 자유를 구가」, 『동아일보』, 1955.7.8; 「귀순비행사

현재 남한 국민의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는 목적에 의해 게재되었고, 동시에 공산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내부적 균열과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한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대공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반공규율국가의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북한 주민을 남한의 ‘국민’으로 포섭해야 하는 당위성 안에서 귀순자 수기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경쟁의 승리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남북의 대립을 선과 악으로 표상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는 고착된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간첩담론과 관련한 수기들이다. 전후 휴전에 따른 결과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은 반공전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특히 간첩담론은 극우반공국가의 수립과정에서 배태된 하나의 규율장치로서 의미화 된다.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의 대량학살은 잠재적인 북한 동조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자행된 것이었고, 잔류파의 사상검증 또한 인민군에 직, 간접적으로 부여한 것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던 바, 간첩, 제오열 담론은 월간 『희망』의 수기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진다.¹²⁾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 세력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 국

환영], 『마산일보』, 1955.7.10; 『두 월남비행사 북한폭로강연』, 『동아일보』, 1955.7.21 등 북한 장교 귀순을 대대적으로 다루게 된다. 월간 『희망』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발 빠르게 대응한다.

12) ‘방첩실화로 게재된 『간첩 『12호』의 고백』, 1955.1은 소련간첩 12호 김영상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 해상보안청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전국에 파문을 던진 소련간첩 김영상은 해방 전 북해도 노무자로 재목벌채를 했으나 굶주림에 소련병사 천막에서 빵을 훔치다 발각되어 소련군 진지구축에 동원, 이후 간첩교육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소련 어선으로 탈출하여 1952년 7월 북해도에서 양곡배급통장을 신청했다가 검거된다. 『나는 대남스파이였다-붉은 간첩의 수기』, 1956.3는 간첩 이효신의 수기로 당의 요청에 의해 밀봉교육을 받고 공작금 60달러를 받아 납파되고, 남한 고관들의 동태파악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나중에는 자수하는 과정이 서술된다.

민방첩 의식이 미흡한 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 등이 ‘비국민’(공산주의 또는 북한을 동조하는 자)이라는 간첩담론을 생산하였다.¹³⁾ 간첩은 북한, 소련, 중공의 친공 대 한국, 미국, 일본의 반공의 대립적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획책하는 존재, 제거되어야 할 공포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육군특무부대장 김창룡은『여러분 곁에 五제이 있다 방첩으로 멸공 통일하자』(1955.7)는 논설에서 “현대전은 과학전, 비밀전, 선전사상전이다”라고 정의하며, 군관민 이간 책동, 내부분열 조장, 정부군의 약체화를 기도하는 반공분자들을 전멸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타공전선의 1인자로 이름이 높던 그는 1956년 1월 부하인 특무부 출신 신초식에 의해 암살 되는데, 월간『희망』은 김창룡¹⁴⁾의 비밀수기인 『무너진 붉은 아성고 김창룡중장 기밀 수기 전록』(1956.4, 1956.5)을 게재한다. 김창룡은 시기가 오면 발표한다는 이유로 비밀수기를 적었고 희망사는 이것을 입수 게재한다. 이 수기는 김창룡 자신이 일본군에 편입된 때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국제공산당에 잠입, 적색분자 적발한 경험, 공산당원 공작방법을 간파하는 과정, 타공전선을 위한 전략적 수사방법 등을 기

13) 전갑생, 『한국전쟁기 간첩 담론 연구』, 『역사연구』 22호, 역사학연구소, 2012, 100쪽. 이승만 정부는 9.28 수복 후 김, 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대간첩작전을 전개하였는데, “공산군 장병, 공산분자 또는 가담 협력한 자를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할 것, 공산분자 또는 가담, 협력한 자를 은닉한 자는 동일한 범죄로 간주하여 엄벌”한다고 하여, 대간첩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였다. 한국전쟁기 16건의 간첩사건 중 9건은 조작사건으로 밝혀져 피의자가 무죄 석방되었다. 치안국은 합동수사본부와 함께 전체 간첩사건으로 약 63,505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고, 특무대는 한국 전쟁기에 총 4,990건과 1,13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78-81쪽 참조).

14) 김창룡이 암살당하자 월간 『희망』은 그가 쓴 수기를 입수하여 게재하는 한편 그의 업적을 기리는 가사(S기자, 『고 김창룡중장의 일화 및 그의 인간-미공개』의 밀화를 중심으로』, 1957.5)를 같이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김창룡을 ‘타공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반공투사, 타공의 공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불멸의 반공투사였고 그가 남긴 찬연한 타공의 공적은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리라 믿는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록하고 있다.

1957을 기점으로 월간 『희망』에서 빨치산, 간첩수기는 원색적인 반공의 이데올로기에 섹슈얼리티의 관능적인 요소가 덧씌워져 흥미위주로 소비¹⁵⁾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세칭 제주도 여공비의 성생활 백서』(1957.7)이다. 편집자는 “이제 여기에 사춘기의 소녀, 17세의 소녀로서 공비생활 4년간을 청산한 조순애양의 인간세계를 달리한 산중에서 발육하는 자신의 사춘기의 성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본사독점으로 만천하에 독자에게 공개하는 바이다.”라고 부기한다.

산중생활, 과거문제 제외하고 산 속에서 여러 차례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촉감을 알게 된 동기를 적어보려고 한다.(중략) 스물하나라는 여자의 몸으로서 성숙한 여자이긴 하였지만 이제껏 저는 여성으로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나의 젖가슴을 더듬고 있는 남자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그는 금방 튕겨져 나올 듯한 눈을 부르 뜨고 씨근덕 거리면서 『소리내면 죽인가 가만히있어!』하고 저의 몸위에 덩쳐오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무서웠다기 보다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중략) 심음한 소리를 내며 저의 머리를 움켜잡으면서 나의 입술에 자기의 입술을 대고 굶주린 사냥개 마냥 빨아대는 것이었습니다.

조순애는 원고청탁이 공비의 성생활이기에 이것을 중심으로 적는다고 언급하며, 수기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수기는 조직에서 연애를 금지했기에 충살을 당할 것을 각오하며 불안하게 만나는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한다. 성적충동을 느끼고 비밀리에 관계를 갖는 과정이 관능적으로

15) 예로 들자면, 『법창야화-흔비마련 위해 가짜 간첩행각』, 1957.12, 육사군이 쓴 기사는 사변 전에 경찰관을 했던 33세의 실업자 청년 손희철이 간첩 행세한 것을 기사화 한다. 그는 자신이 북한공작원이며 북한의 남은 가족의 생사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특무부대에 잡히고도 자기가 계속 간첩임을 주장했으나 조사 20일 만에 결혼비용조달을 위하여 대남공작대원을 가장했다고 고백한다. 가짜 대남공작원임이 판명되어 한편의 연극으로 끝이 났다고 서술한다.

그러진다. 결혼을 약속했던 33살의 남자는 경찰토벌대의 춘기작전에서 죽고, 조순애는 귀순을 결행한다. 수기는 “더 일찍이 자유의 품안에서 오늘의 삶을 즐겼을 것”을 후회하면서 깨끗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맹세 하면서 마무리된다.

이 수기는 『특집: 성 모랄은 어디로? 십대의 세계』의 일부로 게재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¹⁶⁾ 보통 빨치산, 공비, 간첩의 수기가 반공담론에 의한 이념적 헤게모니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여기에서는 정조관념의 타락, 전후파 여성의 성모랄의 한 형태로 제시된다. 동란 후 매춘부의 급증과 아프레걸의 등장으로 성윤리의 동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빨치산의 성의 문제는 흥밋거리로 소비된다. 성적자유를 억압당하고, 본능에 충실하지 못한 비인간화된 공비생활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빨치산이 성적 관능의 흥밋거리로 취급되는 상황은 더 이상 빨치산이 공포스럽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간첩담론이 엄숙하거나 경직된 상태로 유포되지 않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적 지형에는 빨치산이 성적으로 소비되는 존재인 동시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미디어의 조작 또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반공과 섹슈얼리티의 조합은 이 시기 잡지사의 난립과 발행부수의 경쟁에서 고안된 희망사의 상업전략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단적인 예로 1957년 4월 월간 『희망』은 ‘신춘혁신호’ 기획하여

16) 특집으로 기획된 이 기사는 같은 호의 특집 『성모랄은 어디로?』, 특집 『십대의 세계』의 연장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국내 실화로 『성적망상으로 어머니 참살한 두 소녀』, 『여흥의 남해항도 향향의 청등가, 흥등가』와 같이 게재된다. 그중 『10대의 위기나사의 경험, 애정을 금품으로 매수하려는 사나이』수기는 ‘직업여성 청춘구가하는 눈물수기’라는 부재로 모여학교를 졸업하여 K수산에 입사하여 퇴근길에 남자직원의 친절에 속아 정조를 유린당하는 과정, 그 남자에게 버림받는 자신의 경험을 적고 있다.

국판을 4×6배판으로 변경, 잡지의 성향을 “순수오락, 영화, 기타, 취미분위”로 꾸밀 것을 공표, “윤택한 생활이 되었으면 한다.”는 편집자의 말을 전하면서, 화보 34면으로 대폭 증면, 스타스토리, 만우절, 가정란 기사와 산문, 8대 소설 등 다수 게재한다. 이후 1957년 6월호의 경우는 영화소식과 포스터, 유명배우들의 가십성 기사들이, 8월호에는 “실연당한 분들의 수기”를 특집으로 기획한다. 이러한 잡지사의 편집체제의 변화로 인해 흥미, 오락,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포진하게 되며, 간접담론 또한 관능성을 강조하는 연애서사로 윤색되었다. 이데올로기는 휘발되고, ‘유혹’과 ‘퇴폐’의 감각적인 관능을 전면 배치한 이러한 여간접수기는 잡지사의 생존전략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이 보여주는 반공텍스트로서의 수기와 회고는 물론 희망사에서 만 취급되었던 것은 아니다. 1950년 전쟁 직후 반공도서와 수기집은 당시 유행처럼 발행되었고, 문인들, 지식인들의 수기집은 전시 교과서 발행에 맞먹는 부수를 자랑했다. 미국 공보원은 반공도서와 수기집 간행을 적극 지원하게 되는데 『고난의 90일』(수도문화사, 1950)¹⁷⁾은 미국 국무부의 주도로 유진호, 모윤숙 등의 잔류파 문인들의 수기로 간행된다. 또한 양주동, 최정희, 손소희 등이 쓴 『적화삼삭구인집』(국제보도연맹, 1951), 김광주 『지구의 비극』(1951), 조연현, 한무숙 『피란은 서글프다』(1951), 오제도 『붉은군상』(1951), 김중희 편 『전몰해병의 수기』(해병대사령부 전훈감실, 1952), 이한 『거제도 일기-석방된 포로의 혈의 일기』(국제신보사, 1952) 등 휴전 이전 발행된 수기들은 전쟁에 대한 감정적 적대감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거부를 노골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서술했다. 이런 수기들은 전시에 출판, 배포되어 사상

17) 『고난의 90일』은 유진호, 모윤숙 외 잔류파 문인들의 전쟁수기로 민족, 국가의 장래를 위한 후일을 도모하는 사명감에 의해 쓰여 진다.

전의 일면을 보충, 북의 남침을 비판하면서 애국주의를 고취하는데 동원되었다.

수기의 범람은 1950년대를 ‘증언의 시대’로 명명하게 했지만, 구상이 언급한 것처럼 “종군기를 쓴다든가 전선을 소재로 한 작품은 그 발표기관인 신문사라던가 출판기관에서 경원기피”하기에 이른다. 지식인층, 작가들에 의한 수기는 위기의 국가와 자유민주진영을 구해낼 정신의 전투 부대이자 북한의 공식주의 문학에 맞서 싸우는 애국문학인들의 체험이 전율과 공포의 언어¹⁸⁾로 도식화 표현되었고, 이것은 문단 내에서 비예술적, 도식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그럼에도 전시와 전후 발행된 수기는 미공보처와 이승만 정부가 주도하는 전후 반공규율사회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 형성을 위한 감성의 정치, 대중문화정책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다.

전쟁 중 국가의 이념적 선전을 위한 법적인 제도로서 반공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었다면, 일상에서 반공도서, 수기집, 잡지는 대국민 선전기구로서의 애국시민 창출에 기여했고, 이것은 전쟁의 상흔을 집단 기억으로 전화함으로써 반공의 내면화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관주도로 발행된 단행본, 전시소설선 등이 전쟁 당시 잔류파들의 정치적 입장을 증명하고 변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배포되거나 이승만 정권의 국시를 강렬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월간 『희망』에 게재된 수기들은 단행본과 같이 애국시민을 양성하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은 동일하지만, 대중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잡지라는 미디어의 특성상 정론에 가까운 이데올로기의 투영보다는 흥미와 오락의 차원에서 반공담론이 재생산되고 소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서동주,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211쪽.

3. 미소냉전 논리와 스파이, 밀화의 서사

이 장에서는 한국전쟁이 미소냉전의 차원으로 타자화된 시선에 의해 쓰여진 수기, 회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수기들의 필자는 한국전쟁을 미소냉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고, 공산주의세력, 소련의 정치적 억압을 경험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외국인 수기는 내국인 수기보다 적은 빈도와 분량으로 게재되었다. 월간 『희망』은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외국인 수기가 게재되기 시작했으나, 『주간희망』의 경우는 『트르만 자서전』(28회 연재)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리지 않았다.

〈표 3〉 월간 『희망』 반공 관련 외국인 수기, 회고 목록

날 짜	제 목	필 자
53. 7	소련지식인의 근태 절망씨와 평화와 빈곤 ① 랄프 맥그질의 수기 ② 존비플의 수기	랄프 맥그질, 존비플
	나는 조국은 매매하였다(독일장교)	비스말크 중위
54. 4	내가 겪은 구사일생(대한성공회교주)	세실쿠우피어
54. 6	나는 처녀시절 1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1) -공개되지 않은 소련의 형벌밀화	에리노 리페어 여사
54. 7	나는 처녀시절 10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2)	에리노 리페어 여사
54. 8	내가 본 철의 장막의 내부-1954년 소련기행	마샬 맥듀피
	암살의 밀명을 띄고 망명한 소련의 기밀 경찰원	호프로프 대위
	나는 처녀시절 10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3)	에리노 리페어 여사
54. 9	젊은 여몽유병자의 고백	존위
54.12	독점공개 독재자 히트라 밀장의 일기	이돌프 히트리
55. 1	존 박사 도주기-20세기 최대의 붉은 간첩 실화	
55. 2	피의 손자국에 전을하는 만주	이민타이 박사
55. 7	나의 자서전	부유
55.10	비행기사의 중공 옥중기	로란스w 파이크스
55.12	제3국의 평화전 독일 공산당 수령 부인	마가레트노이망
56. 5	어떤 여병사의 자서전	사빙보 여사

날 짜	제 목	필 자
57. 1	한국동란 미공개비화: 나는 6.25 남침을 조종했다 -귀순한 쓰련 스파이의 폭로수기	세르게 모론키브

〈표 4〉 『주간희망』 반공 관련 외국인 수기, 회고 목록

날 짜	제 목	저 자
55.12.26 ~ 56.7.6	트루만 자서전(제1회)~(28회)	트루만
56.4.13	히틀러의 사생활	하이쓰 린게
56.8.24 ~ 9.28	내가 본 한국(1)~(6)	쥬오지.M.데이리
56.9.7	나는 암살대원이었다	가말.압델.낫셀
56.10.26	연극 출연을 마치고...	쥬오지.M.데이리
57.1.11	지옥은 바로 여기!	밀트 팩커
57.3.22 ~ 4.12	어느 여사형수의 수기(1)~(4)	헨리엣트 로젠버그
57.10.11~ 10.25	대통령이 준 별명 S.O.B라는 기자(1)~(4)	돌 피아슨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은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적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데, 이것은 1950년대 미소대립의 냉전체제 때문이었다고 보여 진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소련은 핵무기 전력 경쟁을 벌임으로써 제3차 대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소련을 위신한 공산진영에 대한 정보는 당시 월간 『희망』의 다수의 기사로 제시된다. 체코공산당의 내력을 설명하는 기사(『체코공산당-대연청진상의 전모』, 월간 『희망』 1953.2), 1954년 3월 1일 소련이 태평양 마샬군도 미저니 지역에서 수폭이 실험된 것을 보고하는 기사(『수폭의 정체는 어떠하며 얼마나 무서운가』, 『수소탄은 행복을 줄 것인가』(월간 『희망』 1954.6) 등이 게재되면서 냉전에 대한 국제정세를 전달한다.

또한 잡지는 1954년 6월 15일 ‘아세아반공민족대회’의 개최를 기사화하여 공산주의에 위협받는 한국, 자유중국, 태국, 월남, 향항, 마카오, 비올빈의 8개국 31명이 반공연대를 강화하고 대공투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결의하고 있는 상황을 기사화한다. “자유를 쪼먹는 공산주의 마수, 이제 자유일치 단결하여 흥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선정적인 제호와 함께 대동대회결의문의 ‘선언문’을 게재한다. 민주우방세력의 지원과 세계적인 대공투쟁의 노력만이 평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시기 국제정세 관련 기사의 일관된 논리였다.

특히 휴전 후 1954년 9월 유엔총회에서 중공의 가입문제는 공산주의 확장과 극동아시아의 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미영의 국제정책 노선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문제시되었다. 이에 『亞細亞政情의 起伏線解剖-중공의 유엔가입문제를 중심으로』(월간 『희망』 1954.9)는 영국이 중공과의 통상을 통하여 철의 장막내의 국가들과 국제적 관계를 맺으려 했고, 미국의 경우는 대공강경정책을 주장하면서 영국과 의견불일로 인한 긴장관계를 형성했다. 미영의 아세아 정책의 차이에 대해 국내 논단에서는 극동아시아의 군사적 안전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발발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미국의 트루만 민주당 정부는 구주 중점주의 정책을 우선한 결과 아세아에 대한 방관 정책으로 일관했고, 중공의 세력팽창을 간과한 결과 한국전쟁과 인지전쟁까지 유발하는 사태가 도래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차기 정부인 공화당 정부는 과거의 미온정책을 일소하고 제네바회담 결렬에 따른 대공강경정책의 획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미국의 행보에 관심을 보인다. 이 기사는 당시 아세아 방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중공문제와 결부되면서 급박한 상황임을 주지시킨다. 휴전협정 후 한국전쟁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의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슈화되었던 것이 스파이, 간첩

논의였고, 이에 대한 내용들은 당시 매체를 통해 수기로 회고록으로 담론화 되었다.

월간 『희망』 외국인 필자의 수기와 회고록은 첫째,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스파이로 활동한 내용을 적은 수기이고, 둘째, 한국전쟁과는 관계 없는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실체를 보고하는 수기, 냉전심화에 따른 소련 스파이의 전향수기 등이다. 이 수기들은 소련 스파이, 소련억류 수기 등으로 공산주의 진영의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있고, 히틀러나 스탈린의 사적인 치부들을 드러내는 방식의 수기들도 다수 게재된다.

월간 『희망』의 외국인 수기들이 스파이담론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스파이 담론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문제는 국가체제의 수호와 비국민으로 분류되는 외부 교란세력의 척결과 관계되면서 당시 스파이 담론이 이슈화된다.

소련의 본국에 있는 秘密警察 (NKVD)은 共產黨員뿐만 아니라 一般人民에게도 대단히 인기있는 機關이라고 이라서 黨員은 물론 市民도 귀에 담은 情報를 이 기관에 報告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風潮는 海外에 있어서 小聯의 秘密運動에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사실이 說明하고 있는 것을 보면 首肯된다. 實際問題로써 小聯의 스파이 網과 같이 多數의 獨自的인 멤버를 가진 나라도 世界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으며 또 그 費用의 적은 點에 있어서는 他國에 類例를 볼 수 없다.(중략) 그 스파이 網 이란 過去 一世紀間에 있어 그 使命의 重한 것이라던지 멤버가 優秀했다는 點에 있어 特許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六年間의 活動費用이 겨우 四萬佛에 불과했다는 것은 스파이 史上에 新記錄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⁹⁾

19) 데비트 다-링, 『世界를 휩쓰는 蘇聯의 『스파이』 網』, 월간 『희망』, 1952.6, 15쪽.

이 기사는 1935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에서 활동한 키하르트 초르제 소련 스파이가 6년간 4만불의 활동비를 쓴 것과 도록키를 암살한 NKVD요원 메에나드. 째손의 활동을 서술한다. 이러한 기사들은 스파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내포된 위험성을 전달하는데 주력한다. 스파이 담론은 비단 한국전쟁 이후 냉전체제에서만 담론화 되었던 것은 아니다. 권명아는 과거 제국 일본의 스파이 담론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안과 밖, 적과 동지의 구별과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폭력적인 정체성의 기획²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임종명은 해방공간에 등장한 스파이 이야기가 ‘민족국민(the nation)對 非민족국민과 我國 對 敵國이라는 민족, 국민, 국가주의적 틀에 기초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들을 민족국가의 주체로 변형시키는 것이 스파이 이야기의 정치적 함의였다고 논의한다.²¹⁾

전후 원자탄에 얽힌 스파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공임순은 ‘절대전쟁’의 재형태화를 원자탄과 더불어 육화된 현실로서 각인시키는 존재가 스파이이며, 그는 ‘운동/ 이동하는 신체의 脫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체현하고 있다고 논의한다.²²⁾ 한국전쟁 이후 스파이 논의는 소련의 원자탄 보유 소식과 중공의 세력 확장으로 인한 전 세계의 공산화에 대한 공포와 맞물려 있다. 은닉된 비국민, 비밀공작 주체인 스파이는 냉전을 심화시키는 존재인 동시에 자유주의 국가체제의 분열자로 등장하면서 첩보와 밀화의 서사로 재탄생된다. 이러한 스파이에 대한 담론은 대중매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월간 『희망』 또한 밀화, 비화의 수기형식으로, 또는

20) 권명아, 『총후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2003, 251-280쪽.

21) 임종명, 『해방공간의 스파이 이야기와 정치적 함의』, 『역사학연구』 41권, 호남사학회, 2011, 127-160쪽.

22) 공임순, 『원자탄과 스파이, 전후 세계상의 두 표상: 보이지 않는 중심과 관리(통제)되는 양심, 내면의 지도』, 『민족문화사연구』 48, 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242-277쪽.

섹슈얼리티가 결합된 실화 등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먼저 월간 『희망』외국인 수기중 첫 번째,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스파이로 활동한 내용을 적은 수기 중 『韓國動亂未公開密話 나는 六. 二五 南侵을 操縱했다. 歸順한 倂聯 스파이의 暴露手記』(월간 『희망』 1957.1)를 살펴보면, 필자는 한국전쟁에서 소련 스파이로 활동하다 전향한 세르게 모론키브이다. 그는 크레믈린의 지령에 의해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공급하고, 비밀방송국을 설치, 낙하산 지하공작원을 남한에 침투시키는 일을 수행했다.

나는 한국전쟁의 길을 닦기 위하여 직접 『크레믈린』지령하에 움직인 『소련』의 『스파이』였다. 나는 오렐의 지원을 받아 내행동을 더욱 강화추진시킬 수 있었다. 나는 『소련』으로부터 무기 공급의 길을 터놓았으며 비밀 방송국도 설치했고 낙하산 지하공작원을 남한에 침투시키는 일을 수행했다. 그것은 『쏘비에트』의 금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스파이』 및 그들의 파괴행동을 선동하는 광대한 조직체를 가졌다. 결국 나는 당을 배반당하고 말았으며 나는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조국을 팔았던 것이다.

이 수기에서 스파이의 지령은 ‘미군의 신병력수’, ‘미군신병력의 상륙에 수반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반동여하’, ‘미신병력과 접촉하는데 대한 전망여하’, ‘긴급을 요하는 정보’, ‘신카도릭 정치활동 상황 및 배경문제’ 등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탐정서사와 흡사하게 서술된 이 수기는 처절함이나 잔인함 보다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위주로 한다. 소련군의 스파이활동의 원동력이 자본, 금력의 투하 여부에 있다는 관점은 매우 유의미하다. 미소의 냉전체제가 결국은 자본의 여부에 따라 지속,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암묵적 전제를 하고 있는 이러한 관점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념적 대립의 상위에 자본의 패권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적시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는 소련의 비밀경찰 스파이 회고수기, 소련 군에 의한 납치수기 등은 냉전의 심화에 따른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적의를 노골화한다.²³⁾ 『암살의 밀명을 띄고-망명한 소련의 비밀경찰원』(월간 『희망』, 1954.8)는 소련 비밀 경찰의 임무수행, 망명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명령은 지난날 미국대사를 지내고 현재 내무성 정보조직의 장관으로 임명된 「파-뉴시킹」이 내린 것이며, 명령 가운데는 서독에 거주하고 있는 일망명소련인을 없애버리라는 지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를 주며 잘 연구하라고 말했다. 『라인 作戰』이었다. (중략) 2월 18일 밤이 되었다. 나는 서독 후랑크르크 시내의 어느 집 앞에 서있었다. 비밀경찰행동반의 일원으로서 오스므크리아의 여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이때 피스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비밀경찰원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중략) 즉 만일 그 일이 가령 영구히 조국을 이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여도, 더욱 명예와 자유를 선택할 사람들이 나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⁴⁾

소련의 비밀경찰원 호프로프 대위는 미국대사와 망명한 소련인을 암살하라는 4권으로 된 지령문을 받고 서독으로 급파된다. 암살 대상자를

23) 스파이 수기는 「소련지식인의 근태 절망씨와 평화와 빈곤-랄프 맥그질의 수기, 준비플의 수기, 월간 『희망』, 1953.7; 「나는 조국은 매매하였다, 월간 『희망』, 1953.7; 「내가 본 철의 장막의 내부-1954년 소련기행, 월간 『희망』, 1954.8; “보라! 자유와 평화를 찾은 인간의 아름다운 눈물에 젖어 빛나는 모습! 그는 육신적 전부를 인류의 자유와 결부시켰다”는 제호로 게재된 「암살의 밀명을 띄고-망명한 소련의 기밀 경찰원, 월간 『희망』, 1954.8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에리노 리페어 여사의 「나는 처녀시절 1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공개되지 않은 소련의 형벌밀화, 월간 『희망』, 1954.6, 54.7, 54.8는 상, 중, 하 시리즈로 연재되는데, 편집인은 미국시찰여행 중 알게 된 인기 저서로 읽고 같이 흥분해보자고 덧붙이고 있다. 백림에서 의학공부를 하다가 소련비밀경찰에 체포 시베리아로 유형된 과정, 소련 강제노동자수용소를 자세하게 묘사한 괄목할 수기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24) 호프로프, 「암살의 밀명을 띄고-망명한 소련의 기밀 경찰원, 월간 『희망』, 1954.8, 72-77쪽.

만나지만 죽이지 못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서독에 망명하겠다는 조건을 내건다. ‘로서아 노동동맹’(NTS)에서 활동하는 비밀요원이 소련의 가족을 보호할 것을 수락하여 호프프로프는 서독으로 망명한다. 소련 비밀경찰원의 임무를 띠고 암살을 해야 하는 인간적인 고뇌와 가족의 생사를 걸고 망명을 결심하는 과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된다. 이 수기의 마지막 문단은 수기를 쓰고 있는 당시의 긴박함을 전달하면서 자유를 선택한 것이 옳은 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수기들은 동일하게 공산주의를 배반, 자유주의를 선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전형적인 반공수기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

『나는 처녀시절 1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공개되지 않은 소련의 형벌밀화』(월간 『희망』, 1954.6, 54.7, 54.8)는 “간수들은 야수였다! 꽃같은 처녀의 옷을 시베리아 바람 속에서 벗겼다”라는 선정적이고 관능적인 제호로 게재되며, 삽화의 경우도 여성의 육체를 노골적으로 그리고 있다.

버틸카형무소로 들어오는 모든 죄수들은 누구나 할 것없이 처음에는 어떠한 넓은 방에 끌리어가서 거기서 입었던 옷을 죄다 활짝 벗기우고 마는 것이다. 여자경비원들이 들어와서 죄수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휘적서보고 귀와 콧구멍을 검사하여 본다. 다음에는 입안을 손가락으로 훑어보고 사타구니와 항문을 디려다본다. 다음에는 죄수들을 벌거벗은 채로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부인검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 신체검사를 끝마친다. (중략) 음탕한 악한들은 잘 씻지도 않고 소독도 하지 않은 불결한 면도칼로써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털을 말작 깎아버렸다.

1931년 백림유학 당시 학비를 내지 않는다는 소문에 사회주의 적색학생회에 가입했으나 실패를 알고 탈퇴, 이후 소련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소련 조국을 배반하고 외국을 지지한 죄로 10년의 유형생활을 하게 된다. 감옥에서의 처절한 생존, 성적으로 유린되는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소련 공산주의가 비인간화된 집단임을 시사한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치녀 소련 유형기”는 냉전 체제의 냉혹함과 관능적 내용이 동시에 서술된다. 또한 감정의 수사들, 물음표와 느낌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분노와 증오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독자의 관음증적 시선을 유도한다. 전쟁의 참화를 불러온 원흉인 소련 공산주의의 실체를 보다 선정적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기획은 비윤리적인 측면을 강조, 감성에 호소하면서 미국의 패권이 지속되어야 하는 논리로 수렴된다. 한국전쟁이 공산세계와 자유세계의 대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잔악한 비도의 소련의 이미지를 반복함으로써 냉전체제라는 현재를 주지시킨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외국인 수기는 월간 『희망』, 『주간희망』에도 게재되었지만, 정부주도로 전쟁발발 직후부터 단행본으로 발행되기도 했다. 종군여기자였던 하긴스는 『한국은 세계의 잠을 깨웠다』(『War in Korea: The Report Of A Woman Combat Correspondent』, 윤영춘 역, 1951), 『젊은 여기자의 수기』(『News is a Singular Thing』, 합동통신사, 손기영 역, 1956)의 두 편의 한국전쟁 참여 수기를 발간했다. 이 책이 원작과 거의 시차를 두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국내 번역 출간된 것은 그녀가 한국전쟁 당시 유일한 여자 종군기자로서 가졌던 화제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여타의 종군 수기에 비해 반공과 자유주의의 강조가 당대 국내의 이념적 지향과 밀접히 맞물렸기 때문이었다.²⁵⁾ 이 외에도 러셀 브라운이 편집한 미군의 수기 모음집인 『한국전설-미군기자의 종군수기』(1951)는 공보처에서 지원하는 수도문화사에서 발간되었다는 점과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공보비서관을 역임하고 전시 반공문학을 진두

25) 권채린, 『한국전쟁기 외국인 참전 수기 연구』, 『어문론총』 제6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113쪽.

지휘했던 김광섭이 번역편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전선보고의 반공텍스트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행본과는 달리 월간 『희망』의 외국인 수기는 하긴스, 러셀 브라운의 단행본처럼 정론적인 반공텍스트로 활용되었다기 보다는 잡지가 갖는 미디어적 성격, 즉 대중교양지, 대중오락지에 맞게 재구성되었고 할 수 있다. 월간 『희망』의 외국인 수기가 붉은 스파이, 처녀의 형벌미화로 재구성되는 것은 잡지의 대중성에 의한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여진다.

자유와 평화를 찾는 인간의 휴머니즘, 육체적 전부를 인류의 자유와 결부시키는 이러한 도식은 외국인 수기의 특성으로 집약된다. 공포와 흥분, 죽음에 대한 쇼크, 불안과 동요, 극도의 피로감은 외국인 수기들이 기록해 놓은 정직한 실존적 반응이다.²⁶⁾ 각국의 이해관계와 얽힌 국제정세의 복잡한 논리가 기사와 신문에서 담론화 되었지만, 이러한 내용을 집약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수기, 회고의 프로파간다의 감성에 기대는 것이다. 월간 『희망』의 외국인 수기는 1950년대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편향적으로 분위기 안에서 재미와 흥미, 관능성 안에서 재구성되었다고 하겠다.

4. 극우반공담론의 약화와 탈이념적 사회문제 지향

이 장에서 논의할 점은 월간 『희망』의 반공담론이 약화되거나 해소되는 지점, 탈이념의 지향 등은 없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1950년 전 시기가 반공과 용공, 방첩을 국시로 하여 강력하게 작동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반감을 드러내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었고, 희망사에서는 잡

26) 권채린, 『한국전쟁기 외국인 참전 수기 연구』, 『어문론총』 제68호, 한국문화언어학회, 2016, 119쪽.

지 발간 초기부터 친정부적인 성향을 확실히하면서 반공이념의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공수기와 회고들은 희망사에서 중요 쟁점으로 취급하는 것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1>~<표4>에서 살펴보았듯이 월간 『희망』의 반공담론, 간첩담론들은 1958년 이후 약화, 해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1950년대 일간지에 등장하는 간첩관련 기사들은 1957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월간 『희망』과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신문은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던 만큼, 사설, 기사, 만평, 실화연재 등의 다양한 란을 통해 간첩사건과 후속담론들을 양산했다.

<표 5> 1950년대 간첩관련 기사현황²⁷⁾

연도/신문명	경향	동아	조선	총계
1950	19	21	3	43
1951	0	11	6	17
1952	21	27	44	92
1953	73	85	131	289
1954	74	63	196	333
1955	129	101	93	323
1956	75	80	86	241
1957	372	245	290	907
1958	708	626	437	1771
1959	127	499	208	834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문에서 간첩에 대한 기사는 휴전 후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 무렵부터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전(戰前)과 전쟁 중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방첩강조구간’ 활동이 휴전협정 직

27) 김봉국,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 22호, 역사학연구소, 2012, 110쪽.

후 다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²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당시 주요 야당지였고, 이 신문들에서 간첩관련 기사는 전시 중, 휴정협정 이후, 1957년을 기준으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957년은 이전의 해보다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 1958년 가장 많은 기사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1957년 ‘정우갑 간첩사건’, 1958년 ‘조봉암, 진보당 간첩사건’으로 기인한 것으로 사회저명인사의 간첩사건은 국가보안법의 개정논의를 불러오면서 담론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성의 간첩관련기사의 출처는 모두 군 특무대, 경찰, 법원, 사찰기관, 방첩기관 등 정부기관이었다.²⁹⁾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사화된 간첩사건들은 정권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되기도 했고, 반공 여론을 환기하는 방법으로 수단화 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1957년 이후 간첩담론은 정치권의 권력 장악을 위한 암투의 과정, 이승만 정권의 권력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동원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1950년 중반 이후 국민들은 매체를 통해 간첩담론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고, 간첩의 존재는 언제나 주변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이 시기 신문의 간첩담론은 개인과 사회의 검열에 대한 내면화를 촉진했고, 사회의 반공정체화를 가속화했다.

그러나 신문에서의 간첩담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간 『희망』에서는 1950년대 후반기부터 극우반공주의에 관련한 기사와 수기, 회고록 등이 줄어들었다. 1950년대 반공주의는 그 정당성 자체에 도전을 받지 않는 대신 이를 이승만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유하며 자신의 논거를 정당화하는 반론의 도구로 활용되게 된다.³⁰⁾ 월간 『희망』에서도

28) 김봉국,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 22호, 역사학연구소, 2012, 111쪽.

29) 김봉국,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 22호, 역사학연구소, 2012, 112쪽.

1950년대 후반 극우반공주의에 대한 논조의 약화는 이범석, 『나의부통령 낙선거-국민에게 보내는 백서』(1956.8), 장면, 『내가 걸어온 길』(1957.1), 조봉암 『내가 걸어온 길(상,하)』(1957.2~3) 등의 야권인사들의 회고록을 게재하면서부터 감지된다. 『사형수 허태영 부인 눈물의 수기 아무도 원망지 않으립니다』(1956.12)³¹⁾, 『사형집행직후의 허태영가 탐방기』(1957.11)³²⁾ 등 이승만 정권의 타공주의 1인자였던 김창룡의 암살자 허태영에 대한 기사들을 게재하는 한편, 사형집행 후 남아 있는 가족의 생활난을 연민적 시선으로 서술하는 탐방, 후속 기사들을 수록한다. 특히 조봉암을 다루는 월간 『희망』의 태도는 주목할 만한데, 그는 당시 야당의 거두로 1954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 1956년 사회적민주주의 정당인 진보당³³⁾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
- 30) 김성보, 「전후 한국 반공주의의 균열과 전환」, 『역사와 실학』 62호, 역사실학회, 2017, 193쪽. 이 논문에서는 1950년대 반공주의가 외면적으로는 매우 강력하게 작동되었으나 심각한 3가지 층위의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 논한다. 첫째, 정부가 주도한 반공주의 선전과 탈이념적 사회현실사이의 균열, 둘째, 서구중심의 진영담론과 반서구적, 민족주의적 담론 사이의 균열, 셋째, 반공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균열 등이다.
- 31) 사형될 날을 기다리는 허태영의 아내의 수기에는 가정을 이룬지 13년의 과정, 남편이 수감되어 집안이 파탄 나고 아이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여기에는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와 능력 있는 남편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서술됨으로써 암살자의 부정적 이미지는 제거된다.
- 32) 이 기사는 허태영의 부인이 문제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군관계 및 각 언론기관에 발표한 과정과 3성 장군 강문태 중장, 준장 대령, 중령급 장성들이 배후자와 공모자로 지목된 것을 언급한다. 이에 군부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조직하여 관련자 처벌하게 된다. 또한 이슈화되고 있던 허태영 부인의 임신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33) 진보당이 지향하는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정치, 사회영역에서의 평등적 민주주의와 경제영역에서의 계획적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평등적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 즉 다수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true democracy)이다. 계획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무정부성을 극복 지양하기 위한 계획과 통제를 부과하는 경제체제, 즉 계획경제(planning economy)를 말한다. 즉 조봉암의 민주주의는 무능 부패한 낡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이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불세비즘을 다같이 지양할 수 있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주봉호, 『조봉암과 진보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희망』에서는 「내가 걸어온 길(상)(하)」(1957.2, 1957.3)의 회고록을 연재한다. 회고록은 “진보당의 령수 조봉암씨 그가 걸어온 피어린 투쟁의 길을 더듬어보다.”, “개구쟁이! 愛國靑年! 그리고 自由大韓의 進步主義者로!”라는 부제로 게재되며, “양차의 대통령 선거 전에 있어서 비록 패배는 당했으나 솔직하고 대담한 정견으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는 선생이 걸어온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독자 여러분의 필독을 권한다.”라고 편집후기(1957.2)에 당부하고 있다. 특히 「내가 걸어온 길(하)」(1957.3)에는 위공산당 사건, 무산자동맹, 서울청년회 활동상, 공산당 조직, 사회운동 전모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봉암은 1958년 1월 진보당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 간첩죄로 검거되어 1959년 7월 사형집행을 당하게 된다. 당시 『동아일보』(1958.1.21)에서는 “曹奉岩氏 金日成과 某種內通?”이라는 제목으로 괴뢰 통일노선의 영합한 사실 판명에 대한 당국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蘇 빨력案대로 總選·聯立政府 樹立企圖” 했고 “密使? 密書? 두렵한 内幕은 今明判明”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이루어진 당시의 보수정당체제를 위협하면서 등장한 것이 진보정당이었고, 그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이견의 존재와 타협의 원리, 의회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수용하고 있었다.³⁴⁾ 또한 분단 상황을 활용해 자신의 배타적 이익을 배가시키려는 세력이 남북 모두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³⁵⁾을 가짐으로써 극우반공체제, 냉전

당: 제3의 길, 『동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 502쪽 참고.
 34) 주봉호, 『조봉암과 진보당: 제3의 길』, 『동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 501쪽.
 35) 김태우, 『조봉암의 평화사상-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의 고찰』, 『통일과 평화』 9권

체제에 비판적이었다. 미국의 입장³⁶⁾에서는 불평세력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인물로 조봉암을 인식했다. 그의 반공적인 입장은 분명하지만 민족주의적인 입장에 서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결코려운 상대였고, 이에 간첩혐의로 사형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논평조차 하지 않게 된다. 조봉암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극우반공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사실인 바, 당시 최대의 간첩사건으로 이슈화되어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이에 대해 월간 『희망』에서는 ‘권두언’에서 진보당 사건에 대해 혁신세력의 정치의도가 밝혀지는 뜻에서 주목을 요한다고 언급하며 “政治的混亂을 利用하는 北韓傀儡의 調整에 附和하여 雷同하는 不平分子가 있어 取締當國의 메스를 받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革新을 가장한 어떤 陰謀라도 粉碎”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공임순은 이러한 행보가 조봉암과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그에 대한 기존의 우호적인 색채를 지우는 일³⁷⁾이라고 평가한다. 월간 『희망』의 이러한 행보는 극우반공체제가 심화되는 1950년대 말의 사회, 정치적 환경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월간 『희망』에서 반공담론이 약화되고 정론지의 논점으로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탈이념의 사회현실의 문제를 적시하게 된다. 그 시점은 본격적으로 1958년 1월호부터 시작된다. “대중의 문화향상에 호응하여 내용을 改新하여 지성과 양식을 담근 대중지”를 표방하면서 “지난날의 인식을 지양”하겠다고 편집후기에 전한다. “지성과 양식을 담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123쪽.

36) 정태영, 『조봉암 사형, 미국은 왜 침묵을 지켰나』, 『역사비평』 11호, 역사문제연구소, 1990, 426-427쪽.

37)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23권 제3호, 2017, 39쪽.

근 대중지”, “교양종합지”로 지면을 혁신한 후 반공수기, 회고록 등은 거의 실리지 않으며, 대신 「3·1 운동 회고」, 작가와 일반인의 회고로 내용이 변화된다. 희망사의 이러한 교양지로의 노선변경 사유는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불우한 시기일수록 불우한 환경을 벗어나려고 애쓰고”있으며, “살아 있는 양심을 위해 세속과 싸우고 어지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국민대중의 자각을 촉구하고 보다 강화시키는 터닝포인트가”될 것을 기약한다.

이에 1958년 1월호에는, 「특집-新聞이란 이름의 暴君」과 「특집-高利債亡業誌」등을 기획하게 된다.

얼마나 많은 妥協과 屈服과 不正이 堂堂한 新聞의 大道를 걸어간다는 美名下에 恣行되고 있는가 말이다.(중략) 社說, 論說, 短評을 비롯해서 人間問題 相談欄, 어느 種類의 記事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或種의 主張과 마치 狂信者의 敎示같은 것을 內包하고 있기에 (중략) 讀者나 事實을 들은 사람들은 新聞製作過程이 神祕의 베일에 싸여 있고 또 現代 메카니즘을 通해서 發刊되는 用紙의 奔流에 壓倒된 나머지 그 事實의 眞否를 가리기 前에 우선 믿어 버리고 만다. (중략) 近年 各級 選舉를 契機로 해서 新聞들이 너무나 相反하는 報道를 했기에 적어도 政治問題에 對한 新聞의 公信力은 땅에 떨어졌다만 다른 問題에 있어서는 아직도 新聞의 威力은 굉장하다 할 것이다.³⁸⁾

1958년 1월호에는 “한국의 新聞은 과연 政道를 걷고 있는가? 다각도로 解剖하는 新聞의 生態”라는 부제로 신문사의 공정성의 문제, 공신력의 문제, 보도태도 등을 비판하고 자성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한다. 「新聞의 宣傳과 現實政治」, 「新聞의 公正성과 條件」, 「新聞의 特權은 暴力인가」, 「韓國 저널리즘의 反省」, 「記事와 記者」, 「저널리즘의 辨明」, 「

38) 김용장(한국일보 기획위원), 「한국 저널리즘 반성-한국의 저널리즘은 개공창의 장미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월간 『희망』, 1958.1. 56-57쪽.

『五大新聞의 實態와 生理』 등 이러한 논의는 1958년 민의원선거를 앞두고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高利債亡業誌』의 특집기획³⁹⁾은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고리채 양성화 방안’에 대한 논평들로, 도시와 농촌에서의 고리채 문제, 사채 금융시장의 이면과 희비상을 적나라하게 보도한다. 당시 상공회의소에서 고리채 양성화를 시도하여 구체적 안을 작성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매체에서는 “재계에 적지 않은 파문을 던지고 있다”(『동아일보』, 1957.11.17)고 전한다. 이에 잡지사는 특집 기획으로 ‘고리채 양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33페이지의 분량으로 심도있게 다룬다. 이것에 대해 편집후기는 “私金融에 呻吟하는 韓國經濟의 단면을 조정하여 그릇된 物欲에 침윤하는 經濟界에 매스를 가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개인의 생존과 삶의 문제들을 기사화함으로써 월간『희망』은 대사회적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러한 희망사의 기사들은 반공에 대한 이념의 맹목성에 대한 반성과 탈이념적 사회현실을 중시하는 경향의 반영이라 보여 진다. 잡지는 『민주적인 정책을 수립』(신의식), 『공명선거를 확립하련다』(주요한), 『다수당의 횡포와 억압』(노재천), 『공영사회를 건설』(최용근), 『국방정책을 개혁하련다』(홍영기)등의 일련의 기사들을 게재하면서 사회의 제문제, 현실 당면 문제에 천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탈이념의 현실적 관심은 희망사의 독자적인 행보라기보다는 『사상계』에서도 보여지는데, 장준하는 “국민의 血稅를 삼킨 자 누구며

39) 사채에 대한 특집기사는 다음과 같다. 『都市와 農村에서의 高利債問題』(주요한), 『高利債 繁殖과 企業界의 實態』(황태열, 한국경제신문사 경제부장), 『高利債陽性化 傾向에 對하여』(이병진, 산업은행기획국장), 『企業人이 본 高利債』(나익진, 동서통상사장), 『高利債와 高利貸金業者』(박성용, 농업과 식종지 주간), 『經濟法則에 어긋난 無謀한 高利債陽性化 運動』(석영학, 경제평론가), 『私債로 亡한 企業體들』(양명복, 경제평론가) 등이다.

특권용자와 援助分配의 그늘에서 백성의 희생 위에 부당이득을 盜得한 자 누구며 國憲을 自派의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고친자 누구며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愚弄 모욕한 자 누구며 그래도 오히려 부족하여 눈과 귀를 막은 채 비등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을 겹겹이 묶어 세우고 언론을 봉쇄하고 간악한 모든 수단을 弄하여 民意의 자유로운 發顯을 일소함으로써 特權을 영원히 壟斷하려고 드는 자는 누구냐?」(『사상계』 1957.6)라고 ‘권두언’을 통해 비판한다. 당시 『사상계』는 저항담론으로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지향, 1958년 12월 24일 보안법 파동을 자행한 이승만 정부에 항의하여 1959년 2월호 권두언을 백지⁴⁰⁾ 내 보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1950년대 말 극우반공주의는 전후 내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내적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러한 극우반공주의의 분열이 사회 전반에 걸친 대중주의적 기조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이다. 대국민 선전기구의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반공단체인 한국반공연맹은 1958년 『자유공론』을 창간하여 공산주의 이론과 멸공의 논리를 구체화 했다. 또한 학교에서 반공교육의 차원에서 『애국독본』(한국교육문화협회, 우중사, 1955), 『반공독본 1,2,3,4,5,6』(한국교육문화협회, 박문출판사, 1953~1956) 등을 출판하여 간행했고, 1957년 ‘반공’ 관련 내용이 강화된 도덕교과서가 나온 이후에는 도덕교과를 통해 반공교육을 실시했다.⁴¹⁾ 1950년대 말의 극우반공주의는 한국반공연맹에서의 잡지 발간, 문교부의 반공교과서 편찬과 반공교육의 심화 등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40) 윤상현,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1권, 한림과학원, 2013, 76쪽.

41) 이하나,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사회와 역사』 95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226쪽.

대중적인 기조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반공에 대한 선전선동이 강화되었고, 이것은 반복주의로 예각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월간 『희망』의 반공주의 구축은 전후 1951년 창간부터 195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1958년 1월호부터는 탈이념의 사회현실에 집중하는 기사들을 게재하면서 반공수기는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편집체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잡지는 1958년에 6월호까지 발간, 1959년에는 4, 5월호가, 1962년 속간하여 1,2,3월호를 발간하고 중단된다. 김종완은 속간하면서 “인쇄시설을 현대화 하여 거창한 계획을 세웠으나, 까다로운 사무절차로 2년 동안이나 지연되었고, 두 차례의 혁명으로 일시적 불황을 겪어, 본사의 운영면에서 타격”을 받았다고 언급, 그동안의 잡지를 낼 수 없었던 사정을 전달한다. 이러한 편집자의 언급은 잡지 발간에 있어 정치적 부침이 없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월간 『희망』이 1950년대 반공담론을 주제로 하여 프로파간다, 상업적 저널리즘을 주도하면서 간행되었다면, 1958년 이후 극우반공체제에 대한 거리두기와 탈이념의 현실정치의 당면과제를 담론화하면서 극우반공담론이 해소되기 시작하여 변화, 변혁되었다고 하겠다.

5. 결론

한국전쟁기 수기는 단순히 전쟁의 기록물이라는 의미보다는 통시적인 좌우익의 역사적 맥락과 공시적인 집합적 기억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의 기억은 공동체 역사의 일부로 종속되고, 이것은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같이, 한 개체의 고백적 글쓰기는 전시의 정치, 사회, 문화의 복합적 갈등을 초점화 함으로써 전쟁의

미시사로 자리매김 된다. 1950년대 수기의 유행과 범람은 미국의 공보처와 공보부가 주도되어 정치 선전술의 일종으로 기획된다. 반공을 국시로 하여 탄생한 제1공화국은 국민국가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순반란으로 인한 공산주의 세력을 진압해야 했고, 해방 후 냉전체제의 심화로 인한 6.25 전쟁의 발발, 국가체제 존속을 위협받게 된다. 부르스 커밍스가 6.25전쟁이 미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으로 인한 국제정치의 실책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전쟁은 서구의 이념의 대리전의 성격이 짙었다. 전쟁에서 주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은폐하는 방법은 전쟁의 책임을 적에게 전가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프로파간다의 감정정치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월남, 잔류파 문인들은 혐의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공문화, 반공테스트 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글쓰기는 전시 반공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내면화 방식으로 전파되었고, 잡지 또한 이러한 반공문화기획을 홍보, 선전하는 역할을 자임했다고 할 수 있다.

월간 『희망』, 『주간희망』은 이런 반공규율국가의 이념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이로서 1950년대 자기고백의 증언 수기, 회고는 전후 비문학적 장르의 주류로서 생산, 유통되면서 철저한 반공텍스트로 때로는 관능과 흥미의 독서물로 존속했다. 타공, 멸공의 메시지를 강렬한 반공의 언어로 전달했던 1950년대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의 반공수기들은 프로파간다의 감정정치를 통해 전선의 군인들, 후방의 국민들에게 전달, 파급되면서 반공국민의 내면화를 주도하였다. 또한 월간 『희망』의 외국인 수기들은 냉전의 반공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의해 게재된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 소련과 미국으로 집약, 소련의 정치체제와 비인간화를 비판하는 수기들은 붉은 스파이와 밀화의 메타포로 전달되며, 선정성과 관능성의 도식에 의해 소비된다. 이 수기들에는 자

국에 대한 자부심과 개인의 귀환을 우선으로 서술함으로써 한국전쟁과 아시아의 표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수기는 한국전쟁의 배후에 냉전체제가 존속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당위성과 가치를 전달하면서 독자들에게 어필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월간 『희망』의 극우반공주의적 성향은 변화를 보인다. 1958년 1월 월간 『희망』은 이전의 “대화보의 대중오락잡지”, “스릴과 로맨스로 충만한 오락지의 결정판”의 편집체제를 혁신하여, “건전한 대중교양지”, “교양의 대중잡지”를 표방하게 되는 동시에 반공수기, 회고기사는 사라진다. 이러한 변혁은 탈이념적 사회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극우반공주의에 대한 균열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월간 『희망』만이 아닌 『사상계』에서도 저항담론으로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지향, 보안법 파동을 초래한 이승만 정부에 반감을 드러냈다. 월간 『희망』의 저널리즘적 성격은 1950년대 극우반공체제에 대한 몰입과 거리두기, 탈이념의 현실정치의 새로운 논의를 주도하면서 1962년 종간되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희망』, 『주간희망』, 『사상계』, 『신천지』, 『동아일보』, 『마산일보』 등.

2. 논문과 단행본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 연구』 23권 제3호, 대중서사학회, 2017, 9-55쪽.

_____, 『원자탄과 스파이, 전후 세계상의 두 표상: 보이지 않는 중심과 관리(통제)되는 양심, 내면의 지도』, 『민족문화사연구』 48, 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242-277쪽.

권명아, 『총후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2004, 251-280쪽.

권채린, 『한국전쟁기 외국인 참전 수기 연구』, 『어문논총』 제6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109-132쪽.

김봉국,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 22호, 역사학연구소, 2012, 105-138쪽.

김성보, 『전후 한국 반공주의의 균열과 전환』, 『역사와 실학』 62호, 역사실학회, 2017, 191-216쪽.

김태우, 『조봉암의 평화사상-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의 고찰』, 『통일과 평화』 9권 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99-129쪽.

서동주,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윤상현,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1권, 한림과학원, 2013, 47-83쪽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3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221-276쪽.

이하나,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사회와 역사』 95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201-241쪽.

이행선, 『한국전쟁, 전쟁수기와 전시의 정치』, 『상허학보』 46집, 상허학회, 2016, 117-157쪽.

임중명, 『해방공간의 스파이 이야기와 정치적 함의』, 『역사학 연구』 41권, 호남사학회, 2011, 127-160쪽.

전갑생, 『한국전쟁기 간첩 담론 연구』, 『역사연구』 22호, 역사학연구소, 2012, 59-103쪽.

360 대중서사연구 제23권 4호

정태영, 『조봉암 사형, 미국은 왜 침묵을 지켰나』, 『역사비평』 11호, 역사문제연구소, 1990, 414-429쪽.

조풍연, 『출판문화(6월호)』, 대한출판문화협회, 1975.

최미진, 『『주간희망』의 도전과 매체전략』, 『대중서사연구』 23권 제3호, 대중서사학회, 2017, 161-201쪽.

Abstract

Construction and Division of Anti-communism an Cold War
Ideology on The Magazine *Huimang* (Hope)
- Focusing on Memoirs and Autobiography

Hong, Sun-Ae(Dongduk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logic of the process in which the memories of individuals are transformed into public memories in the anti-communism and the Cold War system, centering on the reminiscences and memoirs published in the Magazines *Huimang*(Hope) and *Weekly Huimang* published by the Huimang Publishing Company. The *Huimang* played the role of a channel to nurture patriotic citizens same as in the book form, bu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magazine, which is centered on th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the anti-communism was reproduced and consumed as an interest and entertainment rather than a projection on ideology with sound argument. Especially since the mid-1950's, the spy discourse was a narrative of interest in sensuality, and the combination of embellishment, anti-communism and sexuality was part of Huimang Publishing Company's mass media strategy.

These memoirs are divided into different categories including autobiographies and experiences of the Korean War, and memoirs of spies who defected. These writings do not reveal the Korean War nor the representations of Asia by first describing the pride and self-esteem of belonging to one's country and the return of individuals. Nevertheless, these memoirs were effective in conveying the justification and value of the ideology of liberal democracy reminding people that the Cold War system persisted behind the Korean War.

In January 1958 when the Magazine *Huimang*(Hope) published an innovative edition with a focus on the post-ideology social reality, and the anti-communist discussions based on postwar regime began to weaken. Therefore, the anti-communist testimonies and memoirs of the Magazine *Huimang*(Hope) in the 1950's were produced and circulated as the mainstream of the postwar non-literary genre, accelerating the anti-communist identity of society and occasionally survived as a

362 대중서사연구 제23권 4호

reading material of sensuality and sexuality.

(Key Words: the Magazine Huimang(Hope), Weekly Huimang, anti-communism, Cold War Ideology, Korean War, spy discourse,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 memories of individuals)

논문투고일 : 2017년 10월 5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3일

수정완료일 : 2017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5일